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8.11.13.(화) 15:00	배포	2018.11.13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 김 성 조(02-2100-2920)	담 당 자	윤 현 철 사무관 (02-2100-2921) 전 동 연 사무관 (02-2100-2936)
	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서 종 균(02-2090-9110)		김 태 수 팀장 (02-2090-9121)

제 목 : 금융위원장,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

□ '18.11.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 체인 '서진산업*'을 방문하여,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주력산업(자동차)의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

*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 투자기업(직원수 841명, '17년말 매출액 5,912억원)

- 생산공장에서는 자동차 금형을 점검·관리하는 공정 및 생산 라인 등을 살펴보았으며,
-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및 금융기관 등과 함께 최근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음

【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】

- ▣ (방문기관) 서진산업 화성공장(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재)
- ▣ (일 시) 2018.11.13(화) 14:30 ~ 16:00
- ▣ (참석자) 금융위원장, 서진산업 및 자동차 부품업체 (2개) 대표
 금융감독원 부원장, 은행연합회 전무,
 산업은행·기업은행·수출입은행 부행장,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,
 신용·기술보증기금 전무, 한국성장금융·뉴레이크 대표, 유암코 등
- ▣ (주요내용) ① 서진산업 화성공장 현장 시찰
 ② 주력산업(자동차)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논의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경쟁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,
 - 구조혁신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, 현재의 위기상황은 우리 주력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
 - 구조혁신을 위하여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아울러,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*도 당부
- * (금융권) 여신의 일괄적인 회수보다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(정책금융기관)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1조원의 보증프로그램 지원 등
- 한편,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,
 - ①구조혁신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 ②기업의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
 - 이를 위해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
-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은 투자자금 및 기존 시설대금 상환, 운영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건의
 - 펀드 운용사 대표는 구조혁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PE의 역할이라며, 선제적 구조조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
-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본시장이 기업가의 의지와 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